

스무숲건축사사무소 홍진희 소장

그녀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고부줄놀이보다 도화지에 마당과 집을 그리는 게 좋았던 소녀. 어릴 적 상상력은 자라면서 더 풍성해지고 매끄러워졌다. 그녀는 이제 다른 이의 집을 그려주는 진짜 건축가가 되었다.



01 02

01 강남의 사무실에서 만난 홍진희 건축가는 시종일관 편안하고 따스한 태도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02 그녀가 직접 그린 스케치 도면

： 단행본 『역원대 집짓기』의 표지에 실린 강화도 주택은 경사지붕이 만든 조형미로 건축주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이구동성으로 '바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우리네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집에 대한 보편적 코드를 엮은 것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설계하는 집들은 강화도 주택처럼 45도 비대칭 지붕이 특징이에요. 키가 큰 집의 꼭짓점에서 지붕을 치맛자락처럼 늘어뜨리고 그 위에 테라스, 사다리, 천창, 굴뚝, 디락, 담쟁이덩굴 등을 소소하게 늘어놓는 식이지요. 하늘 아래 있는 지붕이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사지붕을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 건축 분야 중 특별히 '집'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늘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래 정말 좋은 건 이유가 없으니까요(웃음). 문과 창조, 그리고 벽체를 의미하는 기호를 배운 후로는 다른 친구들이 고무줄 놀이할 때, 진방 안에서 도면을 그리고 놀았어요.

도면을 그리는 소녀라, 일반적이진 않네요
 가만히 평면도를 보고 있으면 스크 벽체가 올라오고 삐걱하고 문이 열리고 사람이 걸어 나오는 상상이 들어요. 평면도 하나만으로도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슴 뛰는 감흥이 있지요. 그리고 보면 건축은 완벽한 상상이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유희 같아요. 건축가는 굉장한 상상력의 소유자이어야 해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 살만한 물진세계를 만들어 내니까요. 스케치와 도면으로 옮겨지기 전, 상상과 허공의 세계에서의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을 견뎌내는 끈기도 필요하구요.

전공이 주거학이고 또 한 번 건축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입니다
 웬지 건축과는 집을 만드는 걸 배우는 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이 싫어 문과에 간 터라 문과계열에서 집과 관련된 학과를 찾다 보니,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과에 '주거학'이 있더군요. 주거

학이니 집에 대해 배울 것이고,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집을 그리고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론 공부만 대부분이라 한동안 집 설계에 대한 꿈은 잊고 지냈지요.

주거학을 공부한 게 실제 설계에 도움이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주거학은 아동학, 노년학, 청년 심리학, 소비자경제학, 가사노동의 이해와 원리 등이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가족 구성원 심리와 행동, 그리고 소비의 주체로서의 가족에 대해 배웠던 시간이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 모두를 이해하고 경제 행위가 늘 일어나는 주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건축을 하루라도 빨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없나요
 건축은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예요. 최소 실무경력 20년은 지나야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건축부터 시작했으면 다른 삶의 영역을 배우고 경험할 시간과 여유가 부족했을 거예요. 대학 시절 다양한 서클 활동을 하며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과 교류해 온 것, 그들이 생각하는 공간과 생활 방식에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은 바꿀 수 없는 저의 큰 자산이지요. 이런 경험이 실제 건축주와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03 숲과 길, 수풀과 어울리는 소박한 집을 꿈꾸며 디자인한 강화도 주택

04 강화도 주택은 30평을 겨우 넘는 작은 집이지만, 실내는 숨바꼭질하듯 공간을 찾는 재미가 있다.

05 그녀가 설명하는 모형은 최근 설계한 흥천의 한 펜션이다. 이곳은 각각의 건물이 각각의 마당을 가지고 조화롭게 모여있는, 그녀가 꿈꾸는 마음의 축소판이다.

: 건축과 적응은 어렵지 않았나요

설계 수업 첫날, 제가 살고 싶은 방과 거실, 욕실 등을 그려갔는데,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길고 선명한 ×자를 그리시면서 “건축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셨죠. 땅과 방위, 햇볕과 바람, 주변 숲과 이웃 등이 모든 걸 생각해 집을 그려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어요. 건축과에 들어가서 가장 큰 불을 켜는 것은 설계는 건축물 내부 공간에 대한 구성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당시 교수님이 ‘건축 설계는 글로 쓰여지지 않은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그말이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설계 지침이 되었지요.

: 건축을 배운 것도 ‘집’을 만드는 일로 수렴되네요

집을 중심으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집은 하나의 작은 무대이죠. 저는 주인공이 잘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정하는 일을 합니다. 건축주의 집에 대한 상상과 꿈을 읽고, 그 상상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 전문적인 기술과 감성을 더하는 것이지요. 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향할까? 이곳에서 계단 위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계속 상상하다 보면 건축주 허락도 없이 제가 그 집에서 먼저 살아보는 것 같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면 상상의 공간에서 저도 집을 싸고 나와, 건축주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것이지요.

“**함축적인 시처럼 간결하고 단순한 집을 꿈꿔요
우리 삶과 마음을 다양하고 따스하게 담아내는 집이요**”

03 04 05





: 소장님이 생각하는 '집다운 집'은 무엇일까요

건축물은 대표적인 물질 영역에 속하지만, 집은 사실 너무나도 비물질적 공간이죠. 집이라는 공간은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연결된 유기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은 참 분위기가 좋아!'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공기의 느낌, 흐름, 그곳에 실린 사람의 마음까지 총체적인 이미지를 말하지요.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집주인의 에너지가 실려야 '집다운 집'이라 할 수 있겠죠.

: 소장님을 찾는 건축주들에게 공통점이 있나요

시간이 갈수록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본인의 꿈이 너무도 소중한 특별한 분들이죠. 자신을 오롯이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원하는 건축주를 만나면, 건축가로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기쁨은 프로젝트마다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힘든 길로 접어들었을까 꾸뽀할 때도 있긴 해요(웃음).

: 설계뿐 아니라 시공에도 깊게 관여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설계자와 건축주뿐 아니라 설계자와 시공자도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되려면 자재의 색깔, 질감, 도어락 하나, 심지어 선반 폭과 두께의 차이도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만약 실시도 면만 갖고 현장을 진행하면 처음 그렸던 이미지가 50%도 나오지 않

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해요. 사무실 책상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 보면 분분했던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죠. 그리고 푹푹탁탁 묵음 분들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아요(웃음).

: 현장 방문은 얼마나 하시나요

한 현장에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견 저희와 함께 일해 온 팀이 시공할 경우예요. 건축주가 직접 견적을 받아 시공사를 결정할 때는 저희가 자주 가는 게 오히려 험가 될 때도 있어요. 시공자들은 저마다 익숙해진 자재와 숙련된 시공 디테일을 고집하는데, 여기서 제 스타일과 방식을 강요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의 삼합이 잘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불협화음 3인보다는 궁합이 잘 맞는 2인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고요.

: 실제 건축주들의 삶이 담긴 모습을 보면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갓 지어진 깨끗함과 비워진 공간의 담백함도 좋지만, 1년쯤 지나고 나서 방문해 보면 집은 확실히 달라져 있어요. 강화도에 지은 나니 하우스 안주인은 매일 다락부터 걸레질을 손수 하신다고 해요. '고맙다, 예뻐져라, 깨끗해져라' 속삭이면서 말이죠. 1+0은 1이지만 0을 게

속 더하면 그건 분명히 다른 1인 것 같아요, 0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사랑과 애듯한 정성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명한 0이 1에 끊임없이 더해져야 집이 집다워지는 것이지요.

： ‘스무숲’이라는 사무실 이름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시무나스무에서 유래된 제 어릴 적 고향 춘천의 실제 지명이에요. ‘숲속 스무 채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숲속 작은 집들이 이루는 마을을 뜻하기도 하죠. 지금도 여전히 단독주택을 짓고 있지만 집 하나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이야기가 담기는 마을 짓기를 꿈꾸고 있죠.

： 소장님이 바라는 마을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시스템과 방법이 잘 갖추어진 기존의 공동주택 성격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길이 있고 그곳에 집에 연결되어 하나 되는 마을이지요. 진정한 프라이버시는 열고 닫는 조절 행태가 자유로워야 하니까요. 함께 할 수도, 혼자 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개별성과 공공성 모두 존중되어야지요.

： 마치 옛날 우리 시골마을 같은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매모호한 불확정성의 공간, 즉 자연발생적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골목이 있는 마을이죠. 같이 모일 곳, 자연스러운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네 정서와 가깝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용인에 30세대 마을을 구상 중인데, 일과 주거를 겸한 타운하우스와 숲으로 열린 단독주택이 함께 있는 마을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최대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길과 집들이 무대가 되어 다양한 삶이 뿌리내릴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이니까 원칙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꼭 지켜야 하는 건 건축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같아야 해요. 통일감이 들면서 균형을 이루려면 지붕이나 담장이나 벽체는 기본적으로 같게 해야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 정도는 존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0~30채 되는 마을은 한 사람의 건축가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제시하고 디자인마스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모여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정성을 들인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한 몫씩 거들어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함께 모여 사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런 욕구가 코하우징(co-housing)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현재 코하우징 한 채를 설계하고 있는데, 연극영화 쪽 커뮤

니터에서 10년 넘게 교류해 온 세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각자의 콘셉트가 반영된 사적 공간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갖춘 집을 설계해 시공이 한창이에요.

： 가족 별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커뮤니티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대표 한 분이 의견을 정리해 다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죠. 설계사무소 입장에서 전체 공간과 개별 공간을 조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복잡함과 고단한 과정 뒤에는 분명 긍정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도심 주거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어요.

： 끝으로, 소장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선은 간결하고 지나침이 없어요. 집이 자연 속에 펼쳐졌을 때, 그 속에서 신 하나 갖는 것도 조식스러워요. 어중간한 사선이나 지붕 흐름 같은 디테일도 제 개인적인 욕심은 아닐까 염려되거든요. 그래서 전 서술형으로 이야기를 늘어놓는 집보다 함축적인 시처럼 간결하고 단순하게 존재하는 집을 꿈꿔요. 안으로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따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들이 모여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

스무숲건축사무소 | 02-515-7106 | www.smusoop.com

